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연구

- 중년기 주부들의 성년례에 대한 의식과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

주 영 애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조교수)

김 정 화 · 문 영 희(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성년례는 통과의례의 하나로, 근래에는 관광사와 학교 및 여러 사회단체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집단성년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년자들 중 소수만 참여할 기회를 얻고 있고, 특히 집단성년례의 경우 온전한 의식을 경험하기보다는 대다수가 방관자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참여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성년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의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성년례가 갖고 있는 난점을 해결하고 통과의례로서의 성년례를 보다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개별성년례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현대 가족행사로서의 개별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론적인 고찰은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하여 전통성년례와 현대성년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정착의 필요성과 의의를 찾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관련문헌고찰과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팀의 도구개발회의를 거쳐 37문항의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8문항, 성년례에 대한 인식조사 11문항, 앞으로 희망하는 성년례에 대한 내용 1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에 부합된 사례로 판단되는 40-50대 전업주부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2010년 4월5일에서부터 15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평균 1시간정도 소요되었고, 분석 시 추가질문이 필요한 경우 유선을 이용하여 자료를 보충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지와 면접조사 추가 유선질문 등을 활용하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사례조사 결과, 조사대상 사례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년례는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정도였으며, 성과 관련되어진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가족과 함께 하는 축하의례이며 술의 의례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를 수행할 경우에는 첫째, 전통성년례에서 성년례를 주관하던 큰 손님의 초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으며, 가족만 참석하는 것으로 한정짓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성년례는 20세의 생일날 함께 축하하는 형식으로, 집에서 평상복을 입고해도 무방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성년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20사례모두 필요하다고 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통해 성년례정착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현재 집단성년례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개별성년례모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성년례에서 큰손님의 역할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안 적용을 제안한다. 셋째, 성년례 시기는 만19세 생일날 가족이 모여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대중매체를 활용한 성년례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계도의 필요성이 높다. 여섯째, 성년례 복장을 갖추므로써 보다 의식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조사결과에 추가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한 의식조사를 병행하여 성년례정착을 위한 좀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